

제72회 학생 한글 백일장 대회 입상자 명단

2026년

사)한국문인협회
충청북도지회

제72회 학생 한글 백일장 대회 입상자 명단

■ 장원(교육감상)

성명	학교명	부문
박태랑	형석고등학교 3-1	운문
안예지	충주여자중학교 3-2	운문
이시연	석교초등학교 4-2	운문
양하랑	세명고등학교 1-2	산문
정새벽	세광중학교 2-2	산문
배그린	석교초등학교 6-2	산문

■ 차상 초등부(충북예총 회장상)

성명	학교명	부문
정민주	석교초등학교 6-1	산문
이서윤	충주 남한강 초등학교 4-1	운문
정연재	복대초등학교 6-3	운문

■ 차상 중등부(충북예총 회장상)

성명	학교명	부문
변지민	충주 중원중학교 1-1	운문
이아인	충주 예성여자중학교 1-4	운문

■ 차상 고등부(충북예총 회장상)

성명	학교명	부문
연하은	충주 예성여자고등학교 1-5	산문
여주연	형석고등학교 1-4	운문
박재민	형석고등학교 1-1	운문

■ 차하 초등부(충북문인협회장상)

성명	학교명	부문
변예린	충주 국원초등학교 5-4	산문
김도운	석교초등학교 5-2	산문
신주호	충주 남산초등학교 5-1	운문

■ 차하 중등부(충북문인협회장상)

성명	학교명	부문
이지후	충주여자중학교 3-4	운문
정운직	칠금중학교 3-3	운문

■ 차하 고등부(충북문인협회장상)

성명	학교명	부문
이은서	산남고등학교 2-5	산문
문정윤	충주여자고등학교 2-4	운문
윤소미	제천 세명고등학교 1-5	운문

■ 참방 초등부(충북문인협회장상)

성명	학교명	부문
신주원	사직초등학교 6학년	운문
이서현	청주 석교초등학교 5-3	운문
한승우	충주 금릉초등학교 5-3	운문
민지윤	청주 석성초등학교 5-	운문
이건희	석교초등학교 4-2	산문
정윤재	석교초등학교 4-2	산문
임윤서	충주 탄금초등학교 4-5	산문

■ 참방 중등부(충북문인협회장상)

성명	학교명	부문
박범준	충주여자중학교 3-3	운문
신수아	충주여자중학교 1-2	운문
문석현	충일중학교 2-2	운문
전민수	충일중학교 3-4	운문
엄태준	미덕중학교 1-3	운문
이예빈	탄금중학교 1-2	운문
연하을	예성여자중학교 1-2	운문

■ 참방 고등부(충북문인협회장상)

성명	학교명	부문
최준혁	세명고등학교 1-2	운문
박강미	형석고등학교 1-2	운문
최재원	형석고등학교 1-1	운문

■ 지도교사상(충북교육감상)

성명	학교명
한영선	석교초등학교
김경구	
이동희	형석고등학교

<운문 부문 심사평>

비 예보가 있는 오후, 우중충한 하늘을 뒤로하고 충북학생백일장 심사를 위해 한국문인협회 충북지회 사무실에 모였다. 이번 시제는 학생들에게 큰 화두가 되는 ‘AI와 나’, ‘충북 관광’이었다.

고등부에서는 형석고등학교 박태랑 학생의 작품이 눈에 띄었다. AI가 주는 편리한 만큼 인간 고유의 인간미를 잃게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진솔하게 담겨 있었고, 참신한 발상과 고등부다운 성숙한 문장력이 돋보였다.

중등부 장원인 충주여자중학교 안예지 학생의 ‘AI와 나’는 기계적인 응답의 완벽함 속에서도 쉽게 채워지지 않는 사춘기 내면의 고민을 잘 담아냈다. AI를 친구처럼 의지하며 성장해 가는 모습에서 이 시대 중학생다운 솔직함과 감성이 느껴졌다.

초등부 장원인 석교초등학교 이시연 학생의 ‘친구는 나의 길’은 학교나 학원에 갈 때는 멀게 느껴지던 길도 친구들과 떡볶이를 먹으러 가는 길은 즐겁고 신난다는 발랄한 표현이 인상적이었다. 초등학생다운 순수함과 생기가 잘 살아있었다.

책 읽기와 글쓰기가 점점 줄어들고, 백일장 참가 학생 수도 예전보다 적어지는 현실은 아쉽다. 작품마다 담긴 학생들의 감성과 생각 속에서 우리 문학의 밝은 미래를 느낄 수 있었으며, 참여한 모든 학생에게 따뜻한 응원의 마음을 보낸다.

운문부 심사위원 이임선

<산문 부문 심사평>

푸른 오월이다. 청청한 하늘빛과 산야의 푸르름이 넘실대는 가정의 달에 학생 백일장 공모전에 응모한 산문 작품들을 보며 마음이 뿌듯했다. 인공지능에 감성을 빼앗기는 삭막한 시대에 우리 꿈나무들의 순수한 작품은 오월의 푸르름처럼 신선했다.

올해 수상작품 선정은 글 쓰는 학생의 마음이 얼마만큼 진솔하게 표현했는지를 우선으로 했다. 뛰어난 표현력에 감동받았고 한 자 한 자 정성을 들여 쓴 마음으로 심사숙고하여 심사했다.

특히, 고등부 장원 세명고 양하랑 수상작품은 제목부터 신선했다. 학업에 지친 중에도 세상의 풍경을 보며 사유하는 점에 점수를 주었고, 중등부 정새벽 학생의 작품도 자연에서 영감을 얻고 표현한 것에 놀라웠다. 초등부 장원 배그린 학생 작품에서 또래 관계를 솔직 담백하게 그려낸 점에 심사위원 모두의 점수를 받았다.

올해 백일장 공모전에 참여한 모든 학생에게 감사와 찬사를 보내며 내년에도 참여해주길 기대해 본다.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지도해주신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린다. 딱딱하고 무미건조한 세상일지라도 감성을 잃지 않고 표현할 수 있는 순박한 심성을 잃지 않기 바라며 더 많은 학생의 참여가 이뤄지길 기대해 본다.

산문부 심사위원 정상옥

2026년 5월 26일

충북문인협회

